

군에 간 아들 카페서 본다

진주 공군사령부 성불사 인터넷 카페 매주 장병들 사진 올려, 댓글로 안부

“아들 군대 보내고 밤잠 못 주무신다고요? 이런 걱정 마세요. 인터넷 카페에 들어오시면 열심히 군 생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법당 성불사주지법사 상원에 나오는 장병들의 부모들이 인터넷 카페(cafe.daum.net/sungboosla)를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작년 8월에 문을 연 카페의 게시판에는 “어머 우리 예쁜 아들 잘 있네” “아무 걱정 말고 몸 건강히 나라 지키는 일에 충실하기를” 등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부모들의 애정 어린 리플들이 가득하다. 인터넷 카페는 매주 일요일이면 아들 들을 한꺼번에 공

군에 입대시킨 이상용 카페 회장(50)이 성불사를 방문해 장병 60여명의 사진 140여장을 찍어 올려놓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부모들은 매주 카페에 들어와 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안부편지 형식의 리플을 달아 집안 소식을 군대 간 아들들에게 전한다.

성불사 주지 법사 상원 스님은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해준다. 매주 일요일이면 때때로 리플을 보내주며 장병 불자들에게 나눠준다. 그 편지를 본 군 불자들이 답장을 하고 싶으면 성불사 내에 비치된 게시판에 적어 놓는다. 군의 특성상 컴퓨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된 사연들을 모아 이상용



지난 11일 열린 성불사 수계법회 장면.

회장과 카페운영자인 부모들이 1주일마다 카페 게시판에 올려 답장을 장병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상용 회장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확인하다보면 각자의 일에 더 충실해 질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까지 취할 수 있게 해 줘 큰 도움이 된다”며 “아들이 교육을 끝마치고 자대배치를 받거나 제대 한

이후에도 일부 열성 부모들은 카페활동을 하며 갖 군 입대시킨 신입(?) 부모들의 상담 역할까지도 자처하고 있다”고 보람 있어 한다. 상원 스님도 “이제는 부모들이 주축이 돼 활발히 운영된다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범당에 나오는 군 장병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jkim@buddhapia.com

박종철 천도재 올린다 3월 3일 종로 공평사거리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 불교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명진 스님·여익구, 이하 추진위) 주최로 열리는 故 박종철 열사 천도재는 3월 3일 오후 1시 종로 조계사 앞 공평빌딩 사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조계사 김상 풍물패와 인목스님의 집전으로 한 박은하씨의 살풀이 공연을 시작으로 불교 전통의 천도식, 안치환씨의 노래와 야단법석의 타악공연, 사진자료 전시회 등으로 진행된다.

김주영 기자

전문이사 2명 총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결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은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2명의 복지전문가를 새로운 이사로 총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현재 7명인 복지재단 이사는 9명이 된다.

이사회는 이날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이사로 영입하기로 하고,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여수령 기자

사 고

예비수험생·학부모님 ‘자비명상’으로 만점 도전!

본사는 예비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빛어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스님 자비명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강좌는 부처님께서 장자 아들에게 설하신 <육방예경>에 근거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건강함 몸과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가 스님은 공주 마곡사에서 포교국장으로서 4년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 마곡사를 대표적 템플스테이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앙대 겸임교수로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사 : 마가 스님
- 장소 : 대치3동 대치3문화센터
- 참가인원 : 100명(200명)
- 시간 : 매 회 오후 3시~5시(2시간)
- 연락처 : (02)2004-8279, 011-737-2658
- 참가비 : 1인 2만원

회차	날짜	장소
1차	2월 10일	대치3문화센터
2차	2월 11일	대치3문화센터
3차	2월 24일	대치3문화센터
4차	2월 25일	대치3문화센터



금강대 성낙승 총장 취임



금강대학교 성낙승 총장 취임식이 2월 15일 금강대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

성낙승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역량 있는 인재 양성,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에 필요한 리더 양성 등 생존전략적 교육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강대 이사장 도움 스님(현태종종정)은 치사를 통해 “금강대를 세계적 일류대학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서원한다”

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상임이사 윤덕, 이사장신 스님(현태종 총무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어린이 생태문화교실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가 창립 5주년을 맞아 ‘어린이 생태문화교실’을 진행한다.

제 1차 어린이 생태문화탐방은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도봉산의 자연과 문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다.

식물학 박사와 숲 해설가 등이 함께 하는 이번 생태문화탐방에서는 겨울 산새와 친구 되는 법, 망월사 문화유산 알아보기, 망월사 스님과의 참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전화나 이메일로 가능하다.(02)745-5813

김주영 기자

문화재관람료 “필요” vs “폐지”

13일 토론회서 불교계·시민단체 ‘팽팽’한 입장차 보여



2월 1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민단체와 불교계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관람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재원 기자

사람 문화재관람료의 존재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불교계가 팽팽히 대립했다.

김관동 조계종 총무원 기획팀장은 지난 13일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관람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화재관람료는 자연경관과 조화돼 존재하는 사찰의 공간

적 특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공원입장료가 폐지됐지만 국립공원의 공간적 특수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람료를 받고 있는 67개 사찰의 문화재관리비용은 708억원, 종교적 기능을 포함한 사찰문화재 관리비용은 807억원에 이르러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보수지원액 256억

원으로는 모자란다”며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보수를 물론 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총체적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이라고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문화재관람료를 지불하는 것은 재산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찰에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위임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불교계의 문화재관람료가 부당하게 징수돼왔고, 또 징수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불교계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징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기자



‘지방’ 이렇게 쓰세요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 가운데, 서울노인복지센터(원장 지관) 서예 동아리 회원 어르신들은 14일부터 3일간 ‘무로 지방 써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첫날 선묵회 회원인 이양구(78), 강만규(76) 어르신 이 센터 1층 행사장에서 신청자들에게 지방을 써주고 있다.

글·사진=박재원 기자

불교인재개발원 정책포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2월 27일 오후 6시 30분 불교인재개발원 교육장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농업 위기와 사찰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이 발표자로 참여해 사찰과 농촌의 상생 관계를 모색해 본다. 참가비 1만원. (02)735-2428

여수령 기자

대가람 창건 불사에 동참하실 불심이 가득한 인연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중부고속도로변에 자리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의 조건으로 창건중인 사찰입니다. 창건불사 동참 불자님이나, 창건에 큰 뜻 을가지고 계신 분을 모십니다.

- 대지 시가로 70여억원 담보제공 가능합니다.
- 연락처 : 017-277-1026 (담당자)

